

L2 화자의 영어 정관사 습득에 관한 연구 -UG를 통한 보편적 의미 자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종근
(목포대학교)

Lee, Jong Kun. 2012. **The Acquisition of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by L2 English Speaker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2). 105-128. Ionin et al. (2008) and Ko et al. (2009) argue that article choice in L2-acquisition by L2 English speakers reflects systemic access to universal semantic features such as definiteness, specificity, and partitivity. Their study focuses on L2-English learners whose native languages lack articles. Ko et al.'s (2009) claim that universal semantic features such as definiteness are at play when these L2-English learners acquire English articles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peakers of article-less languages such as Korean are not influenced by L1-transfer with regard to article acquisition since article-less languages simply do not have articles. The present study, however, shows that the acquisition of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by speakers of article-less languages also involves L1-transfer effects, though in a different way from Spanish. This kind of L1-transfer can account for the non-random error patterns attested in L1-Korean L2-English speakers. Thus,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the claim from the two previous studies (that adult L2 English speakers from article-less L1 languages can access universal semantic features such as definiteness) is neither fully supported nor convincing.

주제어(Key Words): 정관사(definite article), 관사(article), 한정적(definite), 한정성(definiteness), 제2언어습득(L2 acquisition)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목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머리말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 등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학생들이 외국어로 영어를 배울 때 특히 어려움을 겪는 영역 중 하나는 영어 관사의 습득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관사 습득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효과적인 영어 교수 방법의 모색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영어 관사 습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예: 한학성 1996, Huebner 1985, Parrish 1987, Chaudron & Parker 1990, Ionin 2003, Ionin et al. 2008, Ko et al. 2009). 스페인어나 독일어, 불어 등 관사가 있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화자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울 때 관사 습득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¹⁾ 반면에 한국어와 러시아어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의 경우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영어 관사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어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할 문맥에서 부정관사 ‘a’를 사용하고, 부정관사 ‘a’를 사용해야 되는 문맥에서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또 관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사를 생략하거나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관사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L2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의 영어 관사 사용과 관련된 오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specific referent]와 [hearer knowledge] 등과 같은 의미 자질로 그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많았다. [+specific reference, +hearer knowledge]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는 명사구의 경우 정관사 ‘the’를 문법적으로 옳게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the’를 사용해야 할 경우이지만 [-specific reference, +hearer knowledge]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는 명사구의 경우에는 정관사 ‘the’를 옳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유형 분석을 내놓았다. Huebner(1985), Parrish(1987), Chaudron & Parker(1990)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학성(1996)의 연구 등 국내에서도 영어 관사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의 연구는 주로 영어 관사의 습득 정도, 한국에서의 영어 관사 교육의 문제점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2000년대부터는 Ionin(2003)의 연구를 시작으로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L2 영어학습자들이 영어를 습득하면서 관사 사용에 있어서 왜 이러한 특정한 오류 유형을 보이는가에 대해 생성문법의 이론적 틀(framework)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1) Ionin et al. (2008, p. 565)은 “... the L1-Spanish speakers are quite accurate on both definites and indefinites.”라고 언급하면서 L1-스페인어 화자의 경우 L1 전이효과로 인해 영어 관사 습득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실험 결과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어 관사와 영어 관사도 100% 같지는 않은데 스페인어와 영어 사이에 존재하는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Ionin & Montrul(2010)에서 다루고 있다. L1-스페인어 L2-영어 습득자의 영어 관사 사용과 관련된 L1 전이효과의 범위와 폭에 대해서는 Ionin & Montrul(2010)을 참조하시오.

Ionin et al. (2008)은 L2로서의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그 언어적 지식의 원천(sources)으로 모국어로부터의 전이효과(L1 transfer),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 그리고 L2로부터 발견하는 언어 입력 트리거(input triggers)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스페인어와 같이 관사가 존재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L1 전이효과에 힘입어 영어 관사를 쉽게 습득하지만, 러시아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L1 전이효과의 부재로 영어 습득 과정의 초기에 영어 관사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나 점차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을 통해 관사의 용법을 모국어 화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L2 성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과연 Ionin(2003), Ionin et al. (2008) 등의 주장과 같이 영어 관사 습득 시 L1으로부터 전이효과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L1-스페인어 L2-영어 학습자와는 또 다른 유형의 L1 전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L1으로부터 전이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결과(implication), 즉 UG를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L2 성인 영어 학습자들에게도 존재하는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성인 L2 영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로부터 L1-스페인어 L2-영어학습자와는 다른 또 다른 유형의 L1 전이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절에서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된 주요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제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L2 성인 영어학습자의 경우에도 스페인어와는 다른 또 다른 유형의 L1으로부터의 전이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L2 화자의 영어 관사 선택과 관련된 의미 자질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화자에게 영어 정관사 'the'와 부정관사 'a'를 적절히 사용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²⁾ 널리 알려진 대로 정관사 'the'와 부정관사 'a'의 구분은 의미 자

2) 익명의 한 심사자는 영어 원어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 관사를 사용할 때 'uniqueness'의 계산이 중요한데 이는 화자의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맥(context)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원어민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Ionin et al. (2008)의 연구나 Ko et al. (2009)의

질인 [definite]의 값이 [+definite]이나, 아니면 [-definite]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정관사 ‘the’는 [+definite]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에 사용하고, 부정관사 ‘a’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나타나는 명사구가 [-definite]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 사용된다. Heim(1991)의 견해를 따라 본 연구에서는 [+definite](definiteness)와 [-definite] (indefinite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한다.

정의 1.

a. Definiteness (Fregean analysis)

- [the ζ] ζ expresses that proposition which is
- true at index *i*, if there is exactly one ζ at *i*, and it is ζ at *i*,
 - false at an index *i*, if there is exactly one ζ at *i*, and it is not ζ at *i*,
 - truth-valueless at an index *i*, if there isn't exactly one ζ at *i*.

(Heim, 1991, p. 9)

b. Indefinites (quantificational analysis)

A sentence of the form [a ζ] ζ expresses that proposition which is true if there is at least one individual which is both ζ and ξ, and false otherwise.

(Heim, 1991, p. 26)

이 정의에 의하면 다음 일련의 영어 문장 (1)에 나타나는 ‘the puppy’는 ‘definiteness’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고, ‘a puppy’는 ‘indefinites’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

(1) I saw a puppy yesterday. The puppy was very cute.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의미자질을 잘 구분하고 있으며, 정관사 ‘the’는 ‘definiteness’를 인코딩하고 있고 부정관사 ‘a/an’은 ‘indefinites’를 인코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L2 성인 영어 학습자들은 위 문장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관사 사용에

연구에서는 영어 문장 중에 정관사와 부정관사, 그리고 무관사를 선택해야 되는 elicitation task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에게 이견이 없는, 어떤 특정한 관사를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만을 다루고 있다. 영어 원어민들에게도 elicitation task를 시행하여 문제가 없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L2 화자의 관사 사용과 관련된 오류는 영어 원어민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L2 영어 화자에게만 발생하는 오류를 다루고 있다.

있어서는 초보 수준의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비교적 잘 구분하지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맥에서는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2) a. Louise: Where's your mother?

Julie: She is meeting the principal of my brother's elementary school.

He is a very nice man. He is talking to my mother about my brother's grades.

b. Ruby: It's already 4 pm. Why isn't your little brother home from school?

Angela: He just called and told me that he got in trouble! He is talking to the principal of his school! I don't know who that is. I hope my brother comes home soon.

(Ko et al., 2009)

위 예문에서 (2a)의 'the principal'의 경우에는 비교적 정관사 'the'를 영어 모국어 화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옳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2b)의 'the principal'의 경우는 [+definite]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L2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낮다고 하는 실험 결과를 Ko et al. (2009)의 실험은 보여주고 있다.

위 (2a)와 (2b)에 나타나는 'the principal'의 의미 자질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Ko et al. (2009)은 'definiteness' 외에 'specificity'라는 의미 자질을 추가로 소개하고 있다. Ko et al. (2009)은 'definiteness'와 'specificity'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정의 2.

Definiteness and Specificity: informal definitions

If a Determiner Phrase (DP) of the form [D NP] is...

a) [+definite], then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shares the speaker's presupposition of the existence of a unique individual in the set denoted by the NP

b) [+specific], then the speaker intends to refer to a unique individual in the set denoted by the NP, and considers this individual to possess some noteworthy property

(Ko et al., 2009)

위 예문에서 (2a)의 'the principal'의 경우에는 각 학교에 교장이 한 명 한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교장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어 한정성(definiteness)의 의미자질을 갖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옳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자에게 그 교장은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특정한(specific) 존재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영어 모국어 화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정관사를 옳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2b)의 'the principal'의 경우는 각 학교에 교장이 한 명 한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화자와 청자에게 그 학교의 교장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공유되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는 경우와 하더라도 한정성(definiteness)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어,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화자에게 그 교장은 알고 있는 특정한(specific)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영어 정관사가 특정한(specific) 사람이나 사물에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부 L2 영어 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L2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2b)의 'the principal'에서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낮다고 하는 실험 결과를 Ko et al. (2009)의 실험은 보여주고 있다.

위에 인용된 [+definite]와 [+specific]의 정의 2에 의하면 (2a)의 'the principal'은 [+definite, +specific]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고, (2b)의 'the principal'은 [+definite, -specific]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 (2a)에서 'the principal'은 화자가 생각할 때 청자도 화자의 어떤 독특한 개인(unique individual)의 존재에 대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고 ([+definite]), 화자가 그 학교의 교장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떤 특정한 개인(specific individual)을 화자가 바로 지시하고 있다([+specific]). 그러므로 (2a)의 'the principal'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2b)에 나타나는 'the principal'은 화자가 생각할 때 청자도 화자의 어떤 독특한 개인(unique individual)의 존재에 대한 전제를 공유하기는 하나, 화자 자신도 그 학교의 교장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떤 특정한 개인(specific individual)을 화자가 바로 지시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2b)의 'the principal'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Ko et al. (2009)은 한국어와 러시아어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L2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정관사 'the'와 부정관사 'a/an'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다르게 [definite]의 의미자질 외에 [specific]이라는 의미자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 관사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의미 자질로 Ko et al. (2009)은 [definite]와 [specific] 외에도 하나의 의미 자질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partitive]라는 의미자질이다. 다음 영어 문장을 보자.

(3) a. [+partitive: explicit partitive]

Robert: He [Aaron] went to our local pet shop. This pet shop had five puppies and seven kittens, and Aaron loved all of them. But he could get only one! [……] Well, it was difficult for him to make up his mind. But finally, he got (a, the, --) puppy. Aaron went home really happy!

b. [+partitive: implicit partitive]

Jane: Your friend Lucy looks really excited. What's going on?

Mary: She went to the airport to see her mother off, and ran into the Boston Red Sox team. She was very lucky -- she got an autograph from (a, the, --) player.

c. [-partitive]

Robert: Well, he (Joey) was a bit depressed the last few days. So, his parents decided to get him a pet. So last week, he went to our local pet shop.

Elissa: Oh, so did he buy some animal there?

Robert: No, he did not like the puppies in the pet shop, in fact. But then he was walking home, and he found (a, the, --) kitten in the street!

(Ko et al., 2009)

Ko et al. (2009)에 따르면 위 예문 (3a)에서 'five puppies'가 먼저 언급되었고, 그 중 한 마리의 'puppy'를 지칭하는 경우 L1 성인 영어 화자는 'a puppy'를 틀리지 않고 잘 선택하지만 L2 성인 영어 학습자들은 상당한 수의 학습자들이 위 상황이 [-definite]인데도 불구하고 'the puppy'를 선택한다. (3b)에서는 'the team'이라는 말이 언급되고는 있는데 그 팀에 소속된 선수들을 구체적으로 'players'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team'에 'players'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므로 다음에 언급되는 'player'가 [+partitive]의 의미 자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상당한 수의 L2 영어 학습자들이 'a player' 대신 [-definite] 환경인데도 'the player'를 선택한다. (3c)의 경우에는 'kitten'이라는 명사가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이 명사를 필수적으로 포괄하는 집합 명사도 없으므로 [-partitive]로서 대부분의 L2 영어 학습자들이 'a kitten'을 옳게 선택한다.

Ko et al. (2009)은 [partitive]와 관련한 관사 사용의 오류는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아동들에게도 일어나는 오류라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어린 아이들도 영어 습득 초기에 [-definite, +partitive]인 환경에서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partitive]의 의미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의 3.

If a DP is [+partitive], it denotes an individual that is a member of a set introduced by previous discourse (Ko et al., 2009).

Ko et al. (2009)은 [definite], [specific], [partitive] 이렇게 세 가지 의미 자질을 바탕으로 L2 영어 학습자의 영어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가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 세 가지 의미 자질로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비무작위적 오류 유형(non-random error pattern)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소절에서는 Ko et al. (2009)이 분류한 L2 화자의 영어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2.2. L2 화자의 영어 관사 오류의 유형

Ko et al. (2009)은 [definite]와 [specific]의 의미 자질을 네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로 나뉘어서 영어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Ko et al. (2009)에 의하면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에는 정관사 ‘the’를 옳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에는 부정관사 ‘a/an’을 옳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L2 화자들에게 관사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와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다. Ko et al. (2009)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험에서 사용한 문장들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 a. [+definite, +specific]

Kathy: My daughter Jeannie loves that new comic strip about Super Mouse.

Elise: Well, she is in luck! *Tomorrow, I'm having lunch with (a, the, --) creator of this comic strip -- he is an old friend of mine.* So I can get his autograph for Jeannie!

b. [+definite, -specific]

Bill: I'm looking for Erik. Is he home?

Rick: Yes, but he's on the phone. It's an important business matter.

He is talking to (a, the, --) owner of his company! I don't know who that person is -- but I know that this conversation is important to Erik.

c. [-definite, +specific]

Meeting on a street

Roberta: Hi, William! It's nice to see you again. I didn't know that you were in Boston.

William: I am here for a week. *I am visiting (a, the, --) friend from college -- his name is Sam Brown, and he lives in Cambridge now.*

d. [-definite, -specific]

Chris: I need to find your roommate Jonathan right away.

Clara: He is not here -- he went to New York.

Chris: Really? In what part of New York is he staying?

Clara: I don't really know. *He is staying with (a, the, --) friend -- but he didn't tell me who that is.* He didn't leave me any phone number or address.

(Ko et al., 2009)

위 예문에서 (4a)의 경우 명사구인 'the creator'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인데 이 경우 정관사 'the'를 옳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4d)와 같이 명사구 'a friend'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경우에는 부정관사 'a/an'을 옳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L2 화자들에게 관사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명사구 'the owner of his company'와 같이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4b)와 같은 경우와 명사구 'a friend from college'와 같이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진 (4c)와 같은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다. (4b)의 경우와 같이 [+definite, -specific]의 자질을 가진 명사구의 경우 정관사 'the'가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관사 'a/an'을 원어민 화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이며, (4c)의 경우와 같이 [-definite, +specific]의 자질을 가진 명사구의 경우 부정관사 'a/an'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사 'the'를 원어민 화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이다.³⁾

Ko et al. (2009)은 관사 사용에 있어서 L2 영어 화자가 범하는 이러한 오류 유형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며, 앞 절에서 기술한 [definite], [specific], [partitive] 이렇게 세 가지 의미 자질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오류 유형(non-random error pattern)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⁴⁾ Ko et al. (2009) 등이 오류의 유형이 무작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2.3. 영어 관사의 오류 유형 분석

Ionin et al. (2008)은 L2로서의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그 언어적 지식의 원천(sources)으로 모국어로부터의 전이효과(L1 transfer),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 그리고 L2로부터 발견하는 언어 입력 트리거(input triggers)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스페인어와 같이 관사가 존재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영어 관사를 L1 전이(L1 transfer)효과에 힘입어 쉽게 습득하지만, 러시아어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L1 전이효과와 부재로 영어 습득 과정의 초기에 영어 관사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나 점차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을 통해 관사의 용법을 거의 모국어 화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Ko et al. (2009)은 한국인 L2 성인 영어 학습자들도 러시아어 화자와 같이 한국어에 관사가 없으므로 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L1 전이 효과는 없고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을 통해 관사의 용법을 점차 습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보편적 의미 자질이 바로 [definite], [specific], [partitive]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의미 자질 중에서 [definite]는 영어에서 실제로 정관사의 핵심적인 의미자질로 구현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영어 정관사 'the'는 [specific]이라는 의미자질과 관계없이 의미자질 [+definite]를 인코딩하고, 부정관사 'a/an'은 [-definite]의 의미자질을 인코딩한다. 그런데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관사에 인코딩하는 언어가 있다. 사모아어(Samoan)에서는 관사가 존재하지만 [definite]의 의미 자질과는 관련이 없다. 사모아어에서는 관사 'le'가 [+specific]의 의미자질을 인코딩하고, 관사 'se'가 [-specific]의 의미자질을 인코딩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관련된 통계 자료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관사 사용 오류를 분석할 때 대부분의 명사구는 [definite]와 [specific] 이 두 가지 의미 자질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Ionin(2003), Ionin et al. (2008), Ko et al. (2009)의 연구에서도 [partitive]는 논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명사구들의 경우에는 [partitive]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definite]와 [specific]을 중심으로 논의하다가 필요에 따라 [partitive]를 언급할 경우가 있다.

(5) a. [-definite, +specific]

'O le ulugāali'i, fānau l=a lā tama 'o le

PRES ART couple give birth ART=Poss 3.du. child PRES ART
teine 'o Sina

girl PRES Sina

'There was a couple who had a child, a girl called Sina.'

b. [+definite, +specific]

Māsanī 'o le tamāloa e usua'i=ina lava ia...

used PRES ART man GENR get up early=ES EMPH 3sg

'ae nonofo 'o le fafine ma l=a=na tama i

but stay(pl.) PRES ART woman and ART=POSS=3.sg child LD

le fale

ART house

'It was the man's practice to get up early and... while the woman stayed at home with her child.'

(6) a) [-definite, -specific]

Sa fesili mai se tamaitai po=o ai

PAST ask DIR ART(nsp.sg.) lady Q-PRES who

l=o ma tama.

ART=Poss 1.exc.du. father

'A lady asked us who our father was.'

b) [+definite, -specific]

Alu i se tou aiga e moe. Pe se

go LD ART(nsp.sg.) 2.pl. family GENR sleep. Q ART(nsp.sg.)

tama a ai!

boy POSS who

'Go to your family -- whoever that may be -- and sleep! [I wonder] whose boy you might be!' [said to a boy who is selling necklaces at night in front of a hotel]

(Ionin et al., 2008, pp. 557-558)

위 예문을 통해 사모아어에서는 관사 'le'가 [+specific]의 명사구에 [definite]의 의미자질과는 관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연언어에서 관사에 [specific]의 의미자질이 인코딩되고 있다는 것은 [specific]의 의미자질이 보편적 의미자질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partitive]라는 의미 자질도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정관사 사용에 일정 기간 동안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고, 한국인 L2 영어 학습자의 경우 영어 관사 사용에 [partitive]의 의미자질이 일정한 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Ko et al. (2009)은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L2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영어 관사를 습득할 때 관사를 어떻게 습득하는 것인가에 대해 Ko et al. (2009)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한다. 이런 경우 L1 전이효과는 없고, 관사와 관련된 보편적 의미자질, 즉 [definite], [specific]과 같은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을 통해 관사를 습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관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제한된 접촉으로 인해 관사와 관련된 [definite], [specific]와 같은 보편적 의미자질 중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자질이 영어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인코딩하는지에 대해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영어 정관사가 [+definite]를 인코딩하든, 사모아어처럼 [+specific]을 인코딩하든 관계가 없는 [+definite, +specific]의 명사구에는 두 의미자질이 겹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관사 'the'를 옳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definite, -specific]의 명사구에도 정관사를 사용할만한 의미자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관사 'a/an'를 선택하여 옳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definite, -specific]의 명사구와 [-definite, +specific]의 명사구에는 보편적 의미자질 중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자질이 영어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인코딩하는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사 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자주 범한다는 것이다. Ko et al. (2009)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한다.

The Fluctuation Hypothesis (FH) for L2-English article choice:

- 1) L2-learners have full access to the features that can underlie article choice crosslinguistically: the features [+definite] and [+specific].
- 2) L2-learners fluctuate between dividing English articles on the basis of definiteness vs. specificity, until the input leads them to choose the definiteness option.

이 영어 관사 선택 요동 가설(Fluctuation Hypothesis)에 의하면 관사 사용에 있어서

요동(fluctuation)을 보이는 [+definite, -specific]의 명사구와 [-definite, +specific]의 명사구는 L2 영어 학습자들이 ‘specificity option’이 아닌 ‘definiteness option’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영어 관사 선택과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입력 받게 되면 요동(fluctuation)은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Ko et al. (2009)의 주장은 한국어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L2 영어 학습자들에게 영어 관사와 관련하여 L1 전이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본 연구에서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더 많은 자료와 오류의 유형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한국어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L2 영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도 영어 관사와 관련하여 L1 전이효과가 있고, 이러한 L1 전이효과가 한국인 성인 L2 영어 학습자의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유형을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2.4.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된 L1 전이 효과

한국어나 러시아어에 관사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정관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시사(demonstratives)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 정관사 ‘th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시사는 ‘그’이다. 한영사전에서도 한국어 지시사 ‘그’는 영어 정관사 ‘th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a. 개를 보았다. 그 개는 고기를 한 조각 물고 있었다.

I saw a dog. The dog had a piece of meat in his mouth.

b. 그녀는 자기 딸을 그 부자와 결혼시키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

She was eager to marry her daughter to the rich man.

(8) a. 불을 꺼주십시오.

Turn the light off, please.

b.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Excuse me. I need to go to the restroom.

(다음(Daum) 영어사전)

위 예문 (7a)에서 ‘the dog’는 ‘그 개’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 (7b)에서 ‘the rich man’은 ‘그 부자’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예문 (8a)에서는 ‘the light’가 ‘그 불’이 아닌 ‘불’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 (8b)에서 ‘the restroom’은 ‘화장실’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예문 (7)과 예문 (8)의 차이는 (7)의 한국어 문장은 지시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예문 (8)

의 한국어 문장에는 지시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지시사 ‘그’가 영어 정관사 ‘the’와 의미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영어 관사 사용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L2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스페인어 화자가 영어를 습득할 때 보이는 L1 전이효과와는 또 다른 L1 전이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L1 전이효과를 전제로 한 영어 관사 사용의 오류 유형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Ko et al. (2009)의 한국어 관사 사용 오류 유형에 대한 설명보다 더 많은 자료를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

3. 실험적 연구

3.1. 실험 방법

앞 절에서 한국어 지시사 ‘그’가 영어 정관사 ‘the’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⁵⁾ 영어 정관사 ‘the’가 [+definite]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the’가 나타나는 명사구는 [+specific]의 의미자질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지시사 ‘그’도 의미자질을 따져보면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동시에 인코딩하고 있다.⁶⁾ 지시사 ‘그’는 화자와 청자가 공히 알고 있는 어떤 ‘unique individual’에 대해 사용하고, 화자만 알고 있고 청자는 모르는 어떤 ‘specific individual’에 대해 ‘그’를 사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definite, +specific]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지시사 ‘그’는 영어 정관사 ‘the’와는 달리 [+definite, -specific]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한국어 문장에서 ‘그 사장님’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9) Bill: 나는 에릭을 찾고 있어요. 에릭 집에 있어요?

Rick: 예, 하지만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사업상 중요한 일이에요. #그는 지금 다
나는 그의 회사 그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장님이 누구인지 물

5) Wolter(2006)는 정관사와 지시사가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영어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영어 정관사 ‘the’가 영어 지시사 ‘that’와 어원이 같고, 현대영어에서 정관사가 사용되는 곳에 고대영어에서는 지시사가 사용되었다는 Gelderen(2007, p. 297) 등의 주장을 고려하면 한국어 지시사 ‘그’가 영어 정관사 ‘the’와 의미자질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비록 직접적인 참고문헌(reference)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6) 한국어 지시사 ‘그’에 대해 직접 이런 식으로 의미자질을 분석하거나 정의한 문헌은 발견한 적이 없다. 그러나 Ionin(2006)이 영어 지시사 ‘this’가 [+definite]이면서 [+specific]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 기본 정신을 따르면 지시사 ‘this’ 뿐만 아니라 다른 지시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 대화가 에릭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Yes, but he's on the phone. It's an important business matter. He is talking to the owner of his company! I don't know who that person is - but I know that this conversation is important to Erik.)

실험을 위해서 위에 예시한 (7)에 제시한 문장과 같은 유형의 문장을 네 문항(범주 1), (8)에 예시된 문장과 같은 유형의 문장을 네 문항(범주 2), 그리고 정관사 'the'가 총칭지시를 나타내는 경우 두 문항(범주 3)을 포함시키고, 부정관사 'a/an'이 어울리는 문장 네 개 문항과 무관사가 답인 문장을 네 문항 필러(filler)로 섞어 설문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문항을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이 문맥상 명사구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the, a, \emptyset) 3개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emptyset 는 무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선택하라는 설명을 추가했다.

- (10) a. 개를 보았다. 그 개는 고기를 한 조각 물고 있었다.
I saw a dog. (The, A, \emptyset) dog had a piece of meat in his mouth.
- b. 그녀는 자기 딸을 그 부자와 결혼시키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
She was eager to marry her daughter to (the, a, \emptyset) rich man.
- (11) a. 불을 꺼주십시오.
Turn (the, a, \emptyset) light off, please.
- b.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Excuse me. I need to go to (the, a, \emptyset) restroom.

본 연구의 가설은 많은 L2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그'와 영어 정관사 'the'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10)과 같이 한국어 지시사 '그'로 시작하는 명사구가 포함된 한국어 문장에 대응하는 영어 문장을 보고 관사를 선택할 때 영어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비율이 지시사 '그'가 들어가지 않는 (11)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보다 정관사 'the'를 옳게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영어 관사 습득에 있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스페인어 화자들이 갖는 L1 전이효과와는 또 다른 전이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반면 Ko et al. (2009)의 접근 방법으로는 형태소에 관계 없이 의미자질로만 판단하고 (10)의 명사구나 (11)의 명사구가 둘 다 의미자질로 보아 [+definite, +specific]인 경우이기 때문에 오류에 있어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로서 47명의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 47명의 학생은 4년제 대학 영어교육과 교과목 수강 학생 25명과 공과대학

소속으로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학생 2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1.94세였고, 최저 나이는 18세이고 최고 나이는 30세였다. 참여한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클로즈 테스트(cloze test)를 설문지에 함께 포함시켜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40 점 만점에 최저점이 9점, 최고점이 37점, 평균이 28.15점이었다.⁷⁾ 클로즈 테스트에서 32점 이상 받은 학생 16명의 대학 입학 시 영어 수능 성적 수준은 대부분 3등급 이상의 상위권 수준이었다.

3.2. 실험 결과 및 이론적 논의

실험 결과는 위에서 가설로 내세운 대로 정관사 ‘the’를 옳게 선택한 비율이 (10)과 같이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에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는 문장의 경우가 (11)의 경우와 같이 지시사 ‘그’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⁸⁾ [+definite, +specific]이면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는 경우(유형 1)에 정관사 ‘the’로 옳게 답한 비율이 87.75%로 나타났고, [+definite, +specific]이면서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유형 2)에는 정관사 ‘the’로 옳게 답한 비율이 38.25%로 나타났다.

표 1. 명사구의 형태 및 의미 자질에 따른 정관사 선택 비율 (N=47)

명사구의 형태-의미 유형	정관사 ‘the’로 옳게 답한 비율
[+definite, +specific]이면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는 경우(유형 1)	87.75%
[+definite, +specific]이면서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유형 2)	38.25%

이러한 실험 결과는 Ko et al. (2009)의 영어 관사 사용과 관련한 오류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설명이 어려운 결과이다. Ko et al. (2009)의 분석으로는 정관사 ‘the’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형태소 ‘그’의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보편문법을 통해 접근 가능한 관사와 관련한 의미 자질만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나타난 실험 결과는 설명이 어려운 것이다. Ko et al. (2009)의 분석으로는 위의 두 가지 문항 유형이 의미자질로 보았을 때는 같기 때문에 정관사 ‘the’로 옳게 답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실험 결과는 다수의 한국인 L2 영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지시사 ‘그’를 영어 정관사 ‘the’와 연관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efinite, +specific]

7) 클로즈 테스트를 실시한 이유는 실험참여자들의 영어 능력을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수준에 따라 L1 전이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8) 통계 분석은 아래 다른 자료의 통계 분석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면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는 경우 정관사 ‘the’로 옳게 답한 비율이 87.75%라는 것은 Ko et al. (2009)의 연구에서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인 경우 정관사 ‘the’로 답한 비율 88%와 거의 같은 비율이다. 한국인 L2 영어 학습자들에 대한 관사 사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Ko et al. (2009)로부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Ko et al. (2009)의 연구 결과

	[+definite]		[-definite]	
[+specific]	88% the	4% a	22% the	77% a
[-specific]	80% the	14% a	4% the	93% a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Ko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정관사 ‘the’의 사용과 한국어 지시사 ‘그’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오직 [definite]나 [specific]과 같은 의미 자질만을 이용하여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영어 정관사 ‘the’의 의미자질과 관련하여 Ko et al. (2009)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관사를 습득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정관사 ‘the’가 ‘총칭해석(generic interpretation)’을 가지게 해주는 경우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2) a. The tiger is in danger of becoming extinct. (Leech & Svartvik, 2002)
 b. Babbage invented the computer. (Ionin & Montrul, 2010, p. 883)

한국어 학습자들은 위 예문 (12a)에서 ‘the tiger’가 호랑이를 총칭하며 이 문장에서는 ‘a tiger’가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문 (12b)에서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the computer’도 마찬가지로 총칭해석을 갖는다. Chierchia(1998) 등에 의하면 이 예문에서 정관사 ‘the’는 ι 연산자(operator)를 인코딩하고 있다. 이 iota 연산자(ι operator)가 ‘the tiger’로 하여금 총칭해석(generic interpretation)을 갖게 해준다. 정관사 ‘the’가 사용되어 총칭해석을 갖는 영어 명사구의 경우에도 의미자질은 여전히 [+definite]이다. 하지만 한국어 지시사 ‘그’는 ι 연산자(operator)를 인코딩하지 않는다. 위 예문 (12a,b)에 상응하는 한국어 문장은 아래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시사 ‘그’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13) a. $\sqrt{\text{호랑이}}$ 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b. #그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 호랑이’가 총칭적인 해석을 받을 때)
 c. $\sqrt{\text{Babbage}}$ 가 컴퓨터를 발명했다.
 d. #Babbage가 그 컴퓨터를 발명했다.
 (‘그 컴퓨터’가 총칭적인 해석을 받을 때)

한국어 지시사 ‘그’로 인한 L1 전이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인 L2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총칭해석을 갖는 명사구에서도 정관사 ‘the’를 옳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험 결과 역시 ‘그’가 나타나는 경우와 총칭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정관사 ‘the’로 답한 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 명사구의 의미 자질에 따른 정관사 선택 비율 (N=47)

명사구의 형태-의미 유형	정관사 ‘the’로 옳게 답한 비율
[+definite, +specific]이면서 ‘그’가 나타나는 경우(유형 1)	87.75%
[+definite]이면서 총칭지시를 갖는 경우(유형 3)	38.00%

예문 (10)에서처럼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이면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는 경우(유형 1), 예문 (11)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이면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유형 2), 예문 (12)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구가 총칭지시를 갖는 경우(유형 3)에 대해서 정관사 ‘the’를 옳게 답한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이면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는 경우(유형 1)와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이면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유형 2) 사이에 정관사 ‘the’를 옳게 답한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 $F(1, 92) = 118.6438, p < .05$ 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이면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는 경우(유형 1)와 명사구가 총칭지시를 갖는 경우(유형 3) 사이에 대해서도 정관사 ‘the’를 옳게 답한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한 결과 $F(1, 92) = 58.1051, p < .05$ 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명사구가 [+definite, +specific]이면서 지시사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유형 2)와 명사구가 총칭지시를 갖는 경우(유형 3) 사이에 대해서 정관사 ‘the’를 옳게 답한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한 결과 $[F(1, 92) = 0]$ 로 예상한 대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⁹⁾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화자의 경우도 스페인어 L1-화자와는 다르지만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한국어로부터 특별한 종류의 L1 전이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국어 지시사 '그'로부터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L1 전이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위 표 1과 표 3에 나타난 실험 결과도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지시사 '그'로부터 L1 전이효과가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관사 'the'로 옳게 답한 비율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한편 Ko et al. (2009)의 연구나 Ionin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L2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의 가능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영어 관사 관련 자료를 접하게 되면서 점차 영어 관사 선택에 있어서의 요동(fluctuation)에서 벗어나 원어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definite]라는 의미자질이 성인 영어 학습자들에게도 UG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경우 대부분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10여년 이상 영어를 배우고도 아직 영어 관사 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과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배운 아시아인들 중에서 영어 관사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영어 비원어민을 만난 적이 없다는 제2언어습득 전문가 David Stringer(p.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의 가능성을 통해 관사의 용법을 모국어 화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Ko et al. (2009)의 주장이나 Ionin et al. (2008)의 주장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외국어 습득을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들(e.g. Schwartz & Sprouse 1994, 1996; Epstein et al. 1996; Grondin & White 1996)이 제안하는 완전 접근 이론('Full access' theories)도 영어 관사 습득 가능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Ko et al. (2009)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데, 이 연구자들도 L2 학습자가 L2 학습에서 필요한 보편문법의 원리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White & Juffs(1998)는 'subjacency'에 대해, Thomas(1991)는 결속원리에 대해, Dekydtspotter et al. (2001)은 통사-의미 점점 영역에서의 해석원리와 관련해 L2 학습자가 L2 학습에서 필요

9) 클로즈 테스트 점수를 토대로 L2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에 따라 L1 전이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그룹(N=16), 중간그룹(N=20), 하위그룹(N=11) 구분 없이 지시사 '그'에 의한 L1 전이효과가 나타났다. 상위그룹의 학습자들로부터 가장 큰 L1 전이효과가 있었다. 영어가 원어민 수준에 이르면 L1 전이효과가 L2 영어 사용자들의 적절한 영어 관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실험에 참여한 L2 영어 학습자들은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명사구 유형1과 명사구 유형2/3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그룹의 학습자들에게는 지시사 '그'에 의한 L1 전이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 그룹에 속하는 L2 영어 학습자들은 아직 영어 정관사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명사구 유형1에서 옳게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보편문법의 원리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ley-Vroman(1989, 1990)은 성인 학습자의 중간언어 문법(interlanguage grammars)은 모국어 화자의 문법과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가설(Fundamental Difference Hypothesis)을 제기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Tsimpli & Roussou(1991)도 “... adult L2 speakers cannot reset L1 values of parameters associated with functional categories.”라고 주장하면서 L1에서 구현되지 않는 기능범주의 습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L1 영어 화자가 불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 영어에는 없는 기능범주 Num을 잘 습득하여 불어 명사구 내에서의 형용사와 명사의 어순을 잘 습득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불어에 나타나는 명사구 내에서의 ‘N movement to Num’을 잘 습득한다는 사실은 Tsimpli & Roussou(1991)의 주장도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필자는 Bley-Vroman(1989, 1990)의 주장이나 Tsimpli & Roussou(1991)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거나 White & Juffs(1998), Thomas(1991), Dekydtspotter, Sprouse, & Thyre(2001) 등의 L2 화자의 보편문법의 원리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지식 유지 가설(또는 완전 접근 이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자 함이 아니다. 양 진영의 이러한 큰 이론적 이슈 속에서 기능범주 중의 하나인 L2 화자의 영어 정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통해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을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 신중해야 하는데 Ko et al. (2009)의 관사 선택 요동가설(Fluctuation Hypothesis)의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국인 L2 영어 학습자의 경우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해 L1 전이효과가 없다고 가정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인 L2 영어 학습자의 경우 일종의 L1 전이효과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양 진영의 이론적 논쟁의 분기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어습득 이론에서의 이러한 논쟁은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Ko et al. (2009)의 연구는 이러한 논쟁에서 한국어와 같이 L1에 관사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는 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L1 전이효과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영어 관사를 습득할 수 있는 길은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이라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결정적 증거를 한국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Ko et al. (2009)이 제기했던 관사 선택 요동가설(Fluctuation Hypothesis)은 본 연구에서 실험으로 입증한 것처럼 한국어 지시사 ‘그’로부터의 L1 전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설득력을 잃게 된다. 즉, 관사 선택 요동 가설의 핵심인 L2 화자의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 가능성도 그 주장의 설득력을 동시에 잃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학생들이 외국어로 영어를 배울 때 특히 어려움을 겪는 영역 중 하나인 영어 관사의 습득과 관련하여 관사 사용의 오류 유형을 재분석하고 L2 습득 이론과 관련하여 그 이론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onin et al. (2008)은 L2로서의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하여 그 언어적 지식의 원천(sources)으로 모국어로부터의 전이효과(L1 transfer),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 그리고 L2로부터 발견하는 언어 입력 트리거(input triggers)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스페인어와 같이 관사가 존재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영어 관사를 L1 전이효과에 힘입어 쉽게 습득하지만, 러시아어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L1 전이효과와 부재로 영어 습득 과정의 초기에 영어 관사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나 점차 보편문법을 통한 보편적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access to semantic universals through UG)을 통해 다양한 관사 관련 자료를 접하게 되면 관사의 용법을 모국어 화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같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L2 성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도 Ionin(2003), Ionin et al. (2008), Ko et al. (2009) 등의 주장과는 달리 영어 관사 습득 시 L1으로부터 전이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 효과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한국인 성인 L2 영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로부터 스페인어 학습자와는 다른 또 다른 유형의 L1 전이효과가 지시사 '그'로부터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렇게 영어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경우에도 정관사와 유사한 기능범주로부터 L1 전이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영어 관사 습득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사 사용과 관련된 오류 유형을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국인 L2 영어 학습자에게도 영어 관사 습득에서 L1 전이효과가 나타난다면, Ionin(2003), Ionin et al. (2008), Ko et al. (2009) 등의 주장, 즉 관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L2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관사 습득 시 보편문법을 통하여 [+definite]와 같은 관련된 의미자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들 주장의 주요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사가 없는 언어인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에도 한국어와 유사하게 지시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언어들을 모국어로 습득한 L2-영어 학습자들에게도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물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한학성. (1996). *영어 관사의 문법*. 서울: 태학사.
- Algeo, J. (2009).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Boston, M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Bley-Vroman, R. (1989). What is the logical proble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S. Grass & J. Schachter (Eds.), *Linguistic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41-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ey-Vroman, R. (1990). The logical proble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Linguistic Analysis*, 20, 3-49.
- Chaudron, C. & Parker, K. (1990). Discourse markedness and structural markedness: the acquisition of English noun phras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 43-64.
- Chierchia, G.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339-405.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Dekydtspotter, L., Sprouse, R., & Thyre, R. (2001). The interpretation of quantification at a distance in English-French interlanguage: Domain specificity and second-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 8, 265-320.
- Diesing, M. (1992). *Indefinites*. Cambridge, MA: MIT Press.
- Enç, M. (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 1-25.
- Epstein, S., Flynn, S., & Martohardjono, G. (199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Brain and Behavioral Sciences*, 19, 677-714.
- Flynn, S. (1987). *A parameter-setting model of L2 acquisition*. Reidel.
- Fodor, J., & Sag, I. (1982). Referential and quantificational indefinit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355-398.
- Gelderen, E. van. (2007). The definiteness cycle in Germanic. *Journal of Germanic Linguistics*, 19(4), 275-308.
- Grondin, N., & White, L. (1996). Functional categories in child L2 acquisition of French. *Language Acquisition*, 5, 1-34.
- Heim, I. (1991). Articles and definiteness (Published in German as "Artikel und

- Definitheit"). In A. v. Stechow & D. Wunderlich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Berlin: de Gruyter.
- Huebner, T. (1985). System and variability in interlanguage syntax. *Language Learning*, 35, 141-63.
- Ionin, T. (2003). *Article semantic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Ionin, T. (2006) *This is definitely specific: Specificity and definiteness in article system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4, 175-234.
- Ionin, T., Ko, H., & Wexler, K. (2003). Specificity as a grammatical notion: Evidence from L2-English use. *Proceedings of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22 (WCCFL 22)* (pp. 245-258).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 Ionin, T., Ko, H., & Wexler, K. (2004). Article semantics in L2-acquisition: The role of specificity. *Language Acquisition*, 12, 3-69.
- Ionin, T., Zubizarreta, M. L., & Maldonado, S. B. (2008). Sources of linguistic knowledge in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English articles. *Lingua*, 118, 554-576.
- Ionin, T., & Montrul, S. (2010). The role of L1 transfer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with definite plurals in L2 English. *Language Learning*, 60(4), 877-925.
- Ko, H., Ionin, T., & Wexler, K. (2009). L2-Acquisition of English articles by Korean speakers. *Handbook of East Asian Psycholinguistics* (Vol. 3 Korea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ch, G., & Svartvik, J. (2002).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3rd ed.). London: Longman.
- Mosel, U., & Hovdhaugen, E. (1992). *Samoan reference grammar*. Oslo: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 Parrish, B. (1987). A new look at methodologies in the study of article acquisition for learners of ESL. *Language Learning*, 37, 361-83.
- Schafer, R., & de Villiers, J. (2000). Imagining articles: What *a* and *the* can tell us about the emergence of DP. In S. C. Howell, S. A. Fish, & T. Keith-Lucas (Eds.), *Proceedings of the 24th BUCLD* (pp.609-620).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 Schwartz, B. D., & Sprouse, R. A. (1994). Word order and nominative case in

- nonnative language acquisition: A longitudinal study of (L1 Turkish) German interlanguage. In T. Hoekstra & B. D. Schwartz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Papers in honor of Kenneth Wexler from the 1991 GLOW workshops* (pp. 317-368). Amsterdam: John Benjamins.
- Schwartz, B. D., & Sprouse, R. A. (1996). L2 cognitive states and the Full Transfer/Full Access model. *Second Language Research*, 12, 40-72.
- Schwartz, B. D. (2003). Child L2-acquisition: Paving the way. In B. Beachley, A. Brown, & F. Conlin (Eds.), *Proceedings of the 27th BUCLD* (pp. 26-50).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 Thomas, M. (1991). Universal Grammar and the interpretation of reflexives in a second language. *Language*, 67, 211-239.
- Tsimpli, I.-M., & Roussou, A. (1991). Parameter resetting in L2? *University College Londo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3, 49-69.
- White, L., & Juffs, A. (1998). Constraints on wh-movement in two different contexts of non-native language acquisition: Competence and processing. In S. Flynn, G. Martohardjono, & W. O'Neil (Eds.), *The generativ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11-129). Mahwah, NJ: Lawrence Erlbaum.
- Wolter, L. (2006). *That's that: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emonstrative noun phra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CSC. Santa Cruz, CA.

이종근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화: (061)450-2124

이메일: jklee@mokpo.ac.kr

Received on April 15,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10, 2012

Accepted on June 10, 2012